

학교보안관 제도의 개선 방안

Improvement of School Sheriff System as a Security Guard Field

강민완, 김은정

경기대학교 경호보안학과

Min-Wan Kang(kmw@kgu.ac.kr), Eun-Jung Kim(ejkim1007@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학교폭력 및 학교안전을 위한 학교보안관 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제도에 대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소재 학교보안관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를 연구대상으로 선정 후 집락무선표집법을 이용하여 200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최종분석에는 189명을 분석하였다. 설문지의 타당도는 전문가회의와 요인분석, 신뢰도는 신뢰도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통계처리는 카이스퀘어 검정과 t검정, F검정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특성에 따라 학교보안관 제도의 필요성은 차이가 있다. 둘째, 개인적 특성에 따라 학교보안관 제도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있다. 셋째, 개인적 특성에 따라 학교보안관의 역할 인식은 차이가 있다. 넷째, 학교보안관의 역할 활동인식은 차이가 있다. 다섯째, 개인적 특성에 따라 학교생활안전에 도움정도는 차이가 있다. 여섯째, 개인적 특성에 따라 학교보안관 만족은 차이가 있다.

■ 중심어 : | 학교폭력 | 학교보안관 제도 | 학교생활안전 | 학교보안관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hich was conducted as a part of investigations for vitalizing the School Sheriff system proposed as a means to prevent school violence and promote school safety, was to survey recognition of elementary school parents toward the School Sheriff system and present an improvement scheme for the system. For the study, we selected as the research object a set of parents whose children attended schools with School Sheriffs and then sampled 200 parents out of them with cluster random sampling, before analyzing 189 finally. Validity of the questionnaire is verified by expert council and factorial analysis, and reliability by reliability analysis. Statistical means including chi-square test, t-test and F-test are used. The result of the study as follows : First, necessity of the School Sheriff system varies by individual characteristics. Second, recognition toward the system itself varies by individual characteristics. Third, recognition toward the role that should be played by School Sheriffs varies by individual characteristics. Fourth, there is a difference in perceiving the role and activity of School Sheriffs, Fifth, whether the system helped improving school safety varies by individual characteristics. Sixth, the satisfaction from the School Sheriffs.

■ keyword : | School Violence | School Sheriff System | School Life Safety | School Sheriff |

I. 서론

최근에 학교 폭력과 아동 성추행, 납치, 유괴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가 등·하교시 학교 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 및 각종 사고 발생은 학교 안전문제를 크게 사회 이슈화 시키고 있다. 가해자는 주로 성폭력·성추행 전과자이며, 재개발지구나 유휴환경 우범지역 등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99년 학교시설 개방 이후 외부인이 학교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되면서 학교 내·외에서의 학생위험이 증가됨에 따라 이러한 위험요소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여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6].

안전사고 문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성장하는 시점인 학령기 아동·청소년기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며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국가가 부담해야할 사회적 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다[3].

최근 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교를 강제 유인하여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이나 교내폭력, 학교주변 스텝존에서의 교통사고 등은 우리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사건은 교육 이전에 아동·청소년의 기본적인 생존과 보호 차원에서 국민모두가 한 목소리로 국가의 역할 수행을 문제 삼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1].

또한 외부인의 출입으로 인한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별 교내 사고 현황'을 보면 2009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총 2,598건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의 대부분이 일어난 곳은 초등학교로 전체의 61.8%인 1,606건이 발생함에 따라 외부인의 출입에 의한 사고는 초등학교가 가장 취약한 상태였으며, 중학교 693건(26.6%), 고등학교 248건(9.5%)으로 상급 학교로 갈수록 외부인의 출입에 의한 사고는 줄어드는 것으로 미루어 범죄를 저지르고자 침입하는 외부인은 범죄의 대상을 구하기 쉬운 초등학교를 주로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7]. 또한 정부는 조두순, 김길태 사건 이후 아동과 여성 성폭력

을 근절하기 위해 약물요법과 전자발찌, 학생안전강화 학교 등 다양한 법과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성범죄자들이 학교 인근에 거주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9].

또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상당수가 전국 초등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초등학교 열곳 가운데 한곳은 주변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 교육통계를 기준으로 전국의 초등학교 숫자는 모두 5856개교인데, 반경 1km 이내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교가 619개교로 전체의 10.6%에 이르고 있다[12].

이렇듯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사고는 날로 교묘화, 잔인화, 장기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으로 사건이 줄어들기는커녕 강도가 더욱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 아동이 가장 긴 시간을 보내고 부모가 가장 믿고 보내는 학교에서 근래 일어난 사건·사고들을 보면 대부분이 학교의 생활지도 부족이나 관리 부실이고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학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으며,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만의 노력보다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할 것이다[2].

안전은 본질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생존과 보호와 관련된 총체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학교라는 장소에 한정되어 있을 뿐이라고 이해하고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관련된 총괄적 측면에서 학교의 책임을 인식하고 역할을 수행 할 필요가 있다[3].

학교는 다수의 학생들이 집단으로 활동하는 공간이고, 다양한 교육활동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학교안전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신체적 활동이 활발하고 아직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기나 여러 위험에 대해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아동기 학생들을 위한 학교생활 안전성 확보는 매우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일은 학습활동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4].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당사자인 학생 뿐 아니라 부모에게 신체적, 심리적 상처를 남기고 경제적

으로도 큰 타격을 받게 되며, 사고발생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분쟁으로 인해 교사의 사기가 저하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거나 학부모와의 갈등 등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또한 학교안전사고는 학부모와 학생, 교사 등의 불안감을 야기할 뿐 아니라 사회에도 불안감이 확산되므로,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 지원을 위하여 올 6월23일 「초등학교 365일 온종일 안전학교 만들기」 사업을 발표하고, 「국가정책 조정회의」를 거쳐, 6월27일에 「정부의 아동안전 보완 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으며, 「365일 온종일 안전학교 만들기」를 위한 학교시설 인프라구축, 경비인력 배치, 학생안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다[6].

또한, 학생안전강화학교에 등하교 시간대 자원봉사자들이 학교 주변 주요 통학로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책임지는 ‘Walking School Bus’ 제도를 도입하고, 여러 학생이 함께 등·하교하는 ‘어깨동무 학교길’ 운동 추진, 교내 안전지대(Safe-Zone) 운영과 전국적으로 통일된 위험 신호 방법(호루라기 불기, 신발 한 짝 벗기, 소리 지르기 등)을 개발·보급하는 등 학생을 위험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10].

이에 서울시에서는 전 오세훈 시장이 2010년 시장후보 선거공약으로 “학교폭력을 없애고 어린이·청소년이 안전한 서울로 만들기 위한 학교보안관 제도 도입”을 내세워 시장 재선입후 2011년 3월부터 국·공립 초등학교 551교에 학교보안관을 2명씩 1102명을 배치하였다. 학교보안관은 폭력, 납치 유괴, 협박, 감금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 및 교통안전지도와 방과후 교내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시 응급처치나 출입차량 관리, 위험물 학내 반입 통제 등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13].

지난 5월 서울시 국공립 초등학교에 배치된 학교보안관 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를 위해 초등학교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90% 이상의 학부모가 제도에 만족하고 제도를 초·중·고교로 확대 실시하

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안전에 대한 불안감 증대로 인해 학교보안관의 근무인원 증원이나 경찰과의 협조체계 강화 보완과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11].

학교보안관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학교보안관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인식 필요 및 요구를 파악하여 이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011년 3월 이후 학교보안관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보안관에 관한 기초적인 학술적 연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보안관을 대상으로 학교보안관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경호학 지식체 형성에 기여함은 물론 학교보안관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

II. 연구의 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2011년 서울시 소재 학교보안관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선정 후 집락무선표집법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연구대상 선정 후 연구에 분석된 인원의 수는 총 200명의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최종분석에 사용된 사례수는 총 189 명이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구분	사례수(N)	백분율(%)
성별	남자	52	27.51
	여자	137	72.49
연령별	30대 이하	96	50.8
	40대 이상	93	49.2
학력	고졸	45	23.8
	대졸	119	63
	대졸이상	25	13.2
자녀 학교 유형	국립	21	11.1
	공립	107	56.6
	사립	61	32.3

자녀 학년	1-2학년	56	30
	3-4학년	53	28
	5-6학년	80	42
직업 직업	전문직	30	16
	가사업	77	40.5
	자영업	33	17.5
	회사원	32	17
	기타	17	9
학교 선택 이유	교육적	61	32.3
	교통적	70	37
	치안문제	14	7.4
	기타	44	23.3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학교보안관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를 분석하기 위하여 크게 사회인구학적 특성, 학교보안관 인식, 학교보안관 만족 등의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성, 연령, 학력, 자녀학년, 직업 총 7개 문항으로 구성하고 김경식 외[2]의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학교보안관 인식은 1개 문항, 학교보안관 필요성 1개 문항, 학교보안관의 활동인식 1개 문항, 역할활동인식 1개 문항, 학교안전 도움정도 1개 문항, 학교보안관 만족은 2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김찬선[5]의 설문을 수정보완후 사용하였다. 만족도 설문지는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3. 조사절차 및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인 초등학교 학부모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 내용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하고 완성된 설문지를 회수 하였다. 입력된 자료 처리는 SPSSWIN 18.0을 이용하여 카이스퀘어 검증과 t 검정, F검정 등의 기법이 활용되었다.

III. 연구결과

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학교보안관 제도 인식

[표 2]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학교보안관의 활동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표 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학교보안관제도 인식

	구분	알고있다 (%)	모른다 (%)	X ² / df /sig
성별	남자	29(15.3)	23(12.2)	3.443 1 .064
	여자	96(50.8)	41(21.7)	
전체		125(66.1)	64(33.9)	
연령별	30대 이하	57(30.2)	39(20.6)	3.984 1 .046
	40대 이상	68(36.0)	25(13.2)	
전체		125(66.1)	64(33.9)	
학력	고졸	26(13.8)	19(10.1)	3.55 2 .169
	대졸	79(41.8)	40(21.2)	
	대졸이상	20(10.6)	5(2.6)	
전체		125(66.1)	64(33.9)	
자녀 학교 유형	국립	63(33.3)	44(23.3)	10.101 2 .006
	공립	50(26.5)	11(5.8)	
	사립	12(6.3)	9(4.8)	
전체		125(66.1)	64(33.9)	
자녀 학년	1-2학년	38(20.1)	18(9.5)	.866 2 .649
	3-4학년	37(19.6)	16(8.5)	
	5-6학년	50(26.5)	30(15.9)	
전체		125(66.1)	64(33.9)	
직업	전문직	20(10.6)	10(5.3)	37.539 4 .000
	가사업	66(34.9)	11(5.8)	
	자영업	12(6.3)	21(11.1)	
	회사원	13(6.9)	19(10.1)	
	기타	14(7.4)	3(1.6)	
전체		125(66.1)	64(33.9)	
학교 선택 이유	교육적	47(24.9)	14(7.4)	18.992 3 .000
	교통적	39(20.6)	31(16.4)	
	치안문제	4(2.1)	10(5.3)	
	기타	35(18.5)	9(4.8)	
전체		125(66.1)	64(33.9)	

[표 2]에서는 학부모에게 학교보안관 인식에 대해 물어본 결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학교보안관 제도의 인식은 “알고있다”(66.1%)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고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연령에 따라서 40대 이상에서 학교보안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학교유형에 따라서는 국립학교에서 학교보안관을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선택이유에 따라서는 교육적 이유에서 학교보안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5%수준에서 유의하였다.

2. 학교보안관 제도의 필요성

[표 3]은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학교보안관 제도의 필요성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3.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학교보안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χ^2 검증

	구분	전혀 필요	별로 필요	보통	어느 정도	매우 필요	X2/df sig
성별	남자	7(3.7)	0(0.0)	1(.%)	18(9.5)	26(13.8)	12.333 4 .015
	여자	3(1.6)	4(2.1)	4(2.1)	39(20.6)	87(46.0)	
전체		10(5.3)	4(2.1)	5(2.6)	57(30.2)	113(59.8)	
연령별	30대 이하	8(4.2)	1(.5)	2(1.1)	26(13.8)	59(31.2)	5.414 4 .247
	40대 이상	2(1.1)	3(1.6)	3(1.6)	31(16.4)	54(28.6)	
전체		10(5.3)	4(2.1)	5(2.6)	57(30.2)	113(59.8)	
학력	고졸	6(3.2)	0(0.0)	0(0.0)	21(11.1)	18(9.5)	26.280 8 .001
	대졸	2(1.1)	3(1.6)	5(2.6)	26(13.8)	83(43.9)	
	대졸이상	2(1.1)	1(.5)	0(0.0)	10(5.3)	12(6.3)	
전체		10(5.3)	4(2.1)	5(2.6)	57(30.2)	113(59.8)	
자녀 학교 유형	국립	7(3.7)	1(.5)	1(.5)	30(15.9)	68(36.0)	25.742 8 .001
	공립	2(1.1)	0(0.0)	4(2.1)	23(12.2)	32(6.9)	
	사립	1(.5)	3(1.6)	0(0.0)	4(2.1)	13(6.9)	
전체		10(5.3)	4(2.1)	5(2.6)	57(30.2)	113(59.8)	
자녀 학년	1-2학년	1(.5)	2(1.1)	0(0.0)	16(8.5)	37(19.6)	15.237 8 .055
	3-4학년	7(3.7)	2(1.1)	2(1.1)	14(7.4)	28(14.8)	
	5-6학년	2(1.1)	0(0.0)	3(1.6)	27(14.3)	48(25.4)	
전체		10(5.3)	4(2.1)	5(2.6)	57(30.2)	113(59.8)	
직업	전문직	7(3.7)	0(0.0)	1(.5)	4(2.1)	18(9.5)	39.401 16 .001
	가사업	2(1.1)	1(.5)	2(1.1)	23(12.2)	49(25.9)	
	자영업	0(0.0)	3(1.6)	1(.5)	10(5.3)	19(10.1)	
	회사원	0(0.0)	0(0.0)	0(0.0)	13(6.9)	19(10.1)	
	기타	1(.5)	0(0.0)	1(.5)	7(3.7)	8(4.2)	
전체		10(5.3)	4(2.1)	5(2.6)	57(30.2)	113(59.8)	
학교 선택 이유	교육적	3(1.6)	3(1.6)	3(1.6)	22(11.6)	30(15.9)	65.803 12 .000
	교통적	0(0.0)	1(.5)	2(1.1)	11(5.8)	56(29.6)	
	치안문제	6(3.2)	0(0.0)	0(0.0)	4(2.1)	4(2.1)	
	기타	1(.5)	0(0.0)	0(0.0)	20(10.6)	23(12.2)	
전체		10(5.3)	4(2.1)	5(2.6)	57(30.2)	113(59.8)	

[표 3]에서는 학교보안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χ^2 검증 결과이다. 학부모들에게 학교보안관 제도의 필요성을 물어본 결과 매우 필요하다(59.8%), 어느 정도 필요하다(30.2%), 전혀 필요없다(5.3%), 보통이다(2.6%), 별로 필요없다(2.1%)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보안관 제도의 필요성에서 가장 응답률이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집단(46.0%)에서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에서는 대졸집단(43.9%)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학교유형

에 따라서는 국립학교(36.0%)에서 학교보안관이 매우 필요하다고 나타났으며, 직업에 따라서는 가사업(25.9%)에서 학교선택이유에 따라서는 기타(59.8%)이 유에서 학교보안관 제도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학교보안관관의 역할 활동인식

[표 4]는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학교보안관의 역할 활동인식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4. 학교보안관의 역할 활동인식에 대한 χ^2 검증

	구분	알고있다	모른다	X2/df/sig
성별	남자	38(20.1)	14(7.4)	.917 1 .338
	여자	109(57.7)	28(14.8)	
	전체	147(77.8)	42(22.2)	
연령별	30대 이하	74(39.2)	22(11.6)	.054 1 .816
	40대 이상	73(38.6)	20(10.6)	
	전체	147(77.8)	42(22.2)	
학력	고졸	35(18.5)	10(5.3)	1.829 2 .401
	대졸	90(47.6)	29(15.3)	
	대졸이상	22(11.6)	3(1.6)	
	전체	147(77.8)	42(22.2)	
학교 유형	국립	79(41.8)	28(14.8)	4.381 2 .112
	공립	53(28.0)	8(4.2)	
	사립	15(7.9)	6(3.2)	
	전체	147(77.8)	42(22.2)	
자녀 학년	1-2학년	47(24.9)	9(4.8)	2.581 2 .275
	3-4학년	42(22.2)	11(5.8)	
	5-6학년	58(30.7)	22(11.6)	
	전체	147(77.8)	42(22.2)	
직업	전문직	28(14.8)	2(1.1)	20.278 4 .000
	가사업	65(34.4)	12(6.3)	
	자영업	18(9.5)	15(7.9)	
	회사원	21(11.1)	11(5.8)	
	기타	15(7.9)	2(1.1)	
	전체	147(77.8)	42(22.2)	
학교 선택 이유	교육적	48(25.4)	13(6.9)	3.213 3 .260
	교통적	51(27.0)	19(10.1)	
	치안문제	10(5.3)	4(2.1)	
	기타	38(20.1)	6(3.2)	
	전체	147(77.8)	42(22.2)	

[표 4]는 학교보안관의 역할 활동인식에 대한 χ^2 검증 결과이다. 학부모들에게 학교보안관의 활동인식에 대해 물어본 결과 알고있다(77.8%), 모른다(22.2%)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보안관의 활동인식에서 가장 응답률이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직업에서 가사업 부분에서만 학교보안관의 활동인식 부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 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4. 학교보안관의 활동영역인식에 대한 결과

[표 5]는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학교보안관의 활동영역인식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5. 학교보안관의 활동영역인식에 대한 χ^2 검증

	구분	취약 지역	등하교	교내 무단 침입	교내외 폭력	X2/df sig
성별	남자	15(9.6)	11(7.1)	9(5.8)	5(3.2)	2.872 3 .412
	여자	37(23.7)	22(14.1)	41(26.3)	16(10.3)	
	전체	52(33.3)	33(21.2)	50(32.1)	21(13.5)	
연령	30 이하	22(14.1)	23(14.7)	24(15.4)	14(9.0)	8.158 3 .043
	40 이상	30(19.2)	10(6.4)	26(16.7)	7(4.5)	
	전체	52(33.3)	33(21.2)	50(32.1)	21(13.5)	
학력	고졸	14(9.0)	13(8.3)	6(3.8)	3(1.9)	25.706 6 .000
	대졸	38(24.4)	13(8.3)	31(19.9)	16(10.3)	
	대졸 이상	0(0)	7(4.5)	13(8.3)	2(1.3)	
	전체	52(33.3)	33(21.2)	50(32.1)	21(13.5)	
학교 유형	국립	35(22.4)	21(13.5)	22(14.1)	10(6.4)	7.416 6 .284
	공립	14(9.0)	9(5.8)	22(14.1)	8(5.1)	
	사립	3(1.9)	3(1.9)	6(2.8)	3(1.9)	
	전체	52(33.3)	33(21.2)	50(32.1)	21(13.5)	
자녀 학년	1-2학년	7(4.5)	7(4.5)	23(14.7)	11(7.1)	27.539 6 .000
	3-4학년	16(10.3)	17(10.9)	12(7.7)	2(1.3)	
	5-6학년	29(18.6)	9(5.8)	15(9.6)	8(5.1)	
	전체	52(33.3)	33(21.2)	50(32.1)	21(13.5)	
직업	전문직	2(1.3)	13(8.3)	5(3.2)	8(5.1)	38.706 12 .000
	가사업	18(11.5)	14(9.0)	25(16.0)	8(5.1)	
	자영업	11(7.1)	2(1.3)	7(4.5)	1(0.6)	
	회사원	12(7.7)	3(1.9)	11(7.1)	1(0.6)	
	기타	9(5.8)	1(0.6)	2(1.3)	3(1.9)	
	전체	52(33.3)	33(21.2)	50(32.1)	21(13.5)	
학교 선택 이유	교육적	12(7.7)	11(7.1)	19(12.2)	6(3.8)	15.940 9 .068
	교통적	24(15.4)	8(5.1)	15(9.6)	10(6.4)	
	치안 문제	2(1.3)	6(3.8)	1(0.6)	1(0.6)	
	기타	14(9.0)	8(5.1)	15(9.6)	4(2.6)	
	전체	52(33.3)	33(21.2)	50(32.1)	21(13.5)	

[표 5]는 학교보안관 활동영역에 대한 χ^2 검증 결과이다. 학부모들에게 학교보안관의 활동영역에 대해 물어본 결과 매우 취약지역(33.3%), 교내무단침입(32.1%), 등하교(21.2%), 교내·외 폭력(13.5%)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보안관의 활동영역에서 가장 응답률이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연령별에

서는 40대이상 집단(19.2%)이 취약지역을 활동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학력에 있어서는 대졸집단(24.4%)이 취약지역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자녀학년에 있어서는 5-6학년(18.6%)이 취약지역을 직업에서는 가사업(16.0)이 교내무단 침입을 역할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 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5. 학교 생활안전 도움정도에 대한 결과

[표 6]은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학교보안관학교생활안전 도움정도에 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6. 학교생활안전 도움정도에 대한 x² 검증

	구분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어느 정도	매우 도움	X2/df sig
성별	남자	1(0.5)	4(2.1)	5(2.7)	19(10.2)	23(12.3)	5,204 .267
	여자	1(0.5)	10(5.3)	22(11.8)	30(16.0)	72(38.5)	
	전체	2(1.1)	14(7.5)	27(14.4)	49(26.2)	95(50.8)	
연령별	30대 이하	2(1.1)	11(5.9)	14(7.5)	25(13.4)	44(23.5)	7,0164 .135
	40대 이상	0(0)	3(1.6)	13(7.0)	24(12.8)	51(27.3)	
	전체	2(1.1)	14(7.5)	27(14.4)	49(26.2)	95(50.8)	
학력	고졸	0(0)	5(2.7)	3(1.6)	11(5.9)	24(12.8)	7,8468 .449
	대졸	2(1.1)	6(3.2)	19(10.2)	30(16.0)	62(33.2)	
	대졸 이상	0(0)	3(1.6)	5(2.7)	8(4.3)	9(4.8)	
	전체	2(1.1)	14(7.5)	27(14.4)	49(26.2)	95(50.8)	
학교 유형	국립	2(1.1)	10(5.3)	9(4.8)	26(13.9)	58(31.0)	22,8978 .003
	공립	0(0)	3(1.6)	17(9.1)	20(10.7)	21(11.2)	
	사립	0(0)	1(0.5)	1(0.5)	3(1.6)	16(8.6)	
	전체	2(1.1)	14(7.5)	27(14.4)	49(26.2)	95(50.8)	
자녀 학년	1-2	0(0)	10(5.3)	7(3.7)	12(6.4)	27(14.4)	32,5128 .000
	3-4	2(1.1)	0(0)	5(2.7)	24(12.8)	22(11.8)	
	5-6	0(0)	4(2.1)	15(8.0)	13(7.0)	46(24.6)	
	전체	2(1.1)	14(7.5)	27(14.4)	49(26.2)	95(50.8)	
직업	전문직	0(0)	6(3.2)	1(5)	14(7.5)	9(4.8)	39,98716 .001
	가사업	0(0)	6(3.2)	16(8.6)	16(8.6)	37(19.8)	
	자영업	0(0)	1(0.5)	2(1.1)	5(2.7)	25(13.4)	
	회사원	2(1.1)	1(0.5)	5(2.7)	8(4.3)	16(8.6)	
	기타	0(0)	0(0)	3(1.6)	6(3.2)	8(4.3)	
	전체	2(1.1)	14(7.5)	27(14.4)	49(26.2)	95(50.8)	
학교 선택 이유	교육적	0(0)	2(1.1)	12(6.4)	17(9.1)	28(15.0)	27,08212 .008
	교통적	2(1.1)	9(4.8)	5(2.7)	9(4.8)	45(24.1)	
	치안 문제	0(0)	0(0)	2(1.1)	7(3.7)	5(2.7)	
	기타	0(0)	3(1.6)	8(4.3)	16(8.6)	17(9.1)	
	전체	2(1.1)	14(7.5)	27(14.4)	49(26.2)	95(50.8)	

[표 6]은 학교보안관이 학교생활안전에 도움정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매우도움’(50.8), ‘어느정도도움’(26.2), ‘보통이다’(7.5)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38.5)이 남성(12.3)보다 학교보안관이 학교생활안전에 많은 도움을 받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자녀학교유형에서는 국립(31.0)에서 학교생활안전 도움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자녀학년에 있어서는 5-6학년(24.6), 직업에서는 가사업(19.8)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0.1%수준에서 유의하였다.

6.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학교보안관제도에 대한 만족

[표 7]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학교보안관제도 만족에 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7]에 의하면, 학력에 따른 능력 만족은 대졸집단(M=3.581)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집단(M=3.112)이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력에 따른 활동만족에서는 대졸집단(M=3.176)이 높으며, 고졸집단(M=2.733)이 낮게 나타났다. 학교유형에서는 공립(M=3.495)에서 높으며, 사립집단(M=3.117)이 낮게 나타났다. 자녀학년에 따른 활동만족은 자녀학년 1-2학년(M=3.273)에서 높게 나타났고 5-6학년집단(M=2.858)은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선택이유에 따른 능력 만족은 교통적 이유(M=3.625)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에 따른 프로그램만족은 가사업(M=3.564)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 5%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학교보안관 제도 개선 방안

최근에 전국적으로 학교폭력과 아동성추행, 납치 유괴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등하교 및 교내외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교내외에서의 안전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범죄와 불안감 등으로 인한 학교안전과 관련해 그동안 시행된 학교폭력 및 학교안전 대책방안들 중 유일하게 서울시 국·공립 초등학교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학

표 7.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학교보안관 제도 만족의 차이에 대한 t 및 F 검정

구분	프로그램만족	능력만족	활동만족	정책만족	
성별	1. 남자(52)	3.244±.605	3.365±.631	3.096±.696	3.000±.485
	2. 여자(137)	3.366±.687	3.445±.770	3.026±.857	2.936±.685
	t값	-1.124	-.667	.522	.616
연령	1. 30대미만(96)	3.326±.700	3.351±.737	3.052±.806	2.940±.662
	2. 40대(93)	3.338±.633	3.497±.727	3.039±.828	2.967±.610
	t값	-.117	-1.367	.106	-.298
학력	1. 고졸(45)	3.106±.678	3.122±.645	2.733±.617	2.916±.776
	2. 대졸(119)	3.427±.650	3.581±.724	3.176±.882	2.976±.567
	3. 대졸이상(25)	3.289±.644	3.210±.734	2.986±.634	2.910±.687
	F값	3.975	8.196 ***	5.115**	.213
학교유형	국립(21)	3.281±.631	3.362±.744	2.912±.871	2.904±.672
	공립(107)	3.495±.649	3.561±.718	3.224±.701	3.098±.577
	사립(61)	3.117±.807	3.333±.704	3.206±.726	2.785±.543
	F값	3.309*	1.619	3.373	2.682
자녀학년	1. 1-2(56)	3.483±.679	3.602±.762	3.273±.809	3.008±.601
	2. 3-4(53)	3.220±.627	3.278±.738	3.088±.663	2.886±.699
	3. 5-6(80)	3.301±.671	3.393±.694	2.858±.872	2.959±.619
	F값	2.304	2.822	4.542*	.205
학교선택이유	교육적(61)	3.358±.697	3.454±.817	3.076±.761	3.065±.656
	교통적(70)	3.333±.762	3.625±.689	3.176±.914	2.864±.701
	치안문제(14)	3.126±.379	2.946±.597	3.071±.297	3.160±.186
	기타(44)	3.361±.521	3.210±.605	2.787±.794	2.875±.561
F값	.501	5.347***	2.137	1.834	
직업	1. 전문직(30)	3.323±.428	3.500±.615	3.288±.469	3.016±.468
	2. 가사업(77)	3.564±.615	3.496±.765	3.129±.787	3.003±.781
	3. 자영업(33)	2.829±.577	3.340±.678	2.838±.913	2.757±.430
	4. 회사원(32)	3.363±.664	3.375±.628	2.979±1.019	3.039±.553
	5. 기 타(17)	3.217±.878	3.205±1.035	2.764±.674	2.838±.599
F값	8.274 ***	.782	2.007	1.266	

교보안관제도에 대한 학부모 인식을 파악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에 학교안전관련 제도로 2006년 스쿨폴리스가 시행되었고 그 후 명칭을 변경 한 후 현재는 배움터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 배움터 지킴이는 전문직종이라는 의식보다는 봉사가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전국 초·중·고교에 배움터 지킴이가 배치되어 있으나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학교 안전을 관리하는 학교보안관을 배치함으로써 학교안전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있다. 기존에 경찰이나 전문 업체에만 의존했던 학교안전관리 및 순찰 관리 등을 “학교보안관”이라는 학교 안전 전문인으로 배치함으로써 학교보안관 만족도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보안관 제도 인식에 관한 분석 결과 과반수 이상의 학부모들도 학교보안관제도에 대해 “알고있

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 성별에 따라 알고 있다는 응답은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으며, 직업에 따라서는 가사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40대 이상의 집단에서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날로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 내·외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해 학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학교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보안관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인식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학교보안관을 인식하는 부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 이유는 여자가 학교안전관련 제도 및 학교관련 사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40대 이상의 집단에서 높은 이유는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화 출산이 늘고 있는 추세에 40대 이상 집단의 학부모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자녀들의 학교안전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둘째, 학교보안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으며, 자녀학년에 따라서는 5-6학년, 직업에 따라서는 가사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보안관 제도가 학생들을 둔 학부모, 특히, 모친에게 심리적 불안감 요인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학교보안관 제도가 시행 된 기간은 매우 짧지만, 그 효과는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도모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지속적인 학교보안관 제도의 시행은 학교폭력과 아동성범죄에 대한 모친의 걱정과 불안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는데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보안관 제도의 필요성은 사건 사고가 많은 5-6학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높을수록 많은 범죄에 노출이 되어 학교 안에서 학교 안전을 관리하는 학교보안관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에서 실시한 학교보안관 만족도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 96.5%가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8].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학교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학교보안관의 활동 인식에 대해 분석한 결과,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보안관활동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별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에서는 가사업이 가장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작 된지 몇 개월 되지 않은 학교보안관 제도이지만 학교안전에 있어서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교보안관제도는 아직까지 활동에 대해 인식을 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학교보안관제도의 활성화 및 중·고교 확대를 위해서는 학교보안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보안관 활동영역에 대해 분석한 결과, 많은 학부모들은 취약지역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많은 학교보안관들은 학교안전의 전반적인 많은 활동(등·하교 관리, 학교 내·외 순찰, 외부인 출입관리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학부모들은 학교내 취약지역만 순찰 및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고정관념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학교보안관을 관리하는 업체나 학교장들의 많은 관심과 변화로 보다 나은 학교 안전을 만들기 위해 더욱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학교보안관이 학교생활안전의 도움정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안전에 있어서 학교보안관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많은 학부모들은 아직까지도 학교안전관리가 많은 문제점들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학교보안관의 배치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도움을 받고 있으나, 문제는 아직까지 학교안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연령대가 높은 퇴직자를 선발 및 배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로인해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선발 및 전문교육을 통해 학교 안전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학교보안관제도 만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력에 따른 프로그램만족, 활동만족은 대졸이상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이 학교보안관 프로그램과 활동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녀학년에 따른 활동만족은 자녀학년 1-2학년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보안관의 활동으로 인해 학교안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녀의 학년이 낮을수록 학교안전에 대해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학교보안관 활동에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계속적으로 학부모들의 학교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높아져 활동만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에 따른 프로그램만족은 가사업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에서 실시한 학교보안관제도 만족도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만족도에서 나타난 매우 만족한다 15.9%, 약간 만족한다 74.8% 등의 총 90.7%가 만족한다는 결과[14]를 나타내

이 연구의 결과를 강력하게 지지해주고 있다. 이렇듯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보안관 만족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학교보안관 활동영역 확대 및 학교보안관 배치인원과 범위 확대, 위기관리 프로그램 및 메뉴얼 개발 및 보급 등을 제안 할 수 있다.

학교보안관제도가 처음 시행되어 많은 문제점과 다소 부족한 인식도 및 만족도 등을 감안한다면, 이 연구에서 보여준 일련의 결과들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학교안전에 대한 관심도와 학교보안관제도가 곧 안전한 학교생활과 직결된다는 생각 때문에 학교보안관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나아가 학교보안관제도의 보완점과 개선 방안 제시 등을 학교안전 관련 연구의 축적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 학교에서 원하는 학교안전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파악하여 보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학교안전생활을 정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 및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최종분석에 사용된 사례수는 189명이었고 설문지법을 활용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보안관 제도 인식도는 40대 이상 학부모가 많이 인식하고 있다. 자녀의 학교유형은 국립 학교 학부모가 많이 인식하고 있다. 가사업 학부모가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다. 둘째, 학교보안관 제도의 필요성에서는 성별에 따라서 여성 집단의 학력에서는 대졸집단이 매우필요하다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녀의 학교유형에 따라서는 국립 학교(36.0%)에서 학교보안관이 매우필요하다는 것이 가장 높다. 직업에 따라서는 가사업(25.9%)에서 학교보안관 제도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다. 셋째, 학교보안관의 역할 인식은 차이가 있다. 알고 있다(77.8) 집단이 모른다(22.2)집단보다 우월하게 높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20.1)보다 여성(57.7)이 특히 직업에 따라

서는 가사업(34.4)에서 가장 높다.

넷째, 학교보안관의 역할활동인식은 차이가 있다. 연령별에서는 40대 이상 집단(19.2)이 취약지역을 활동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학력에 있어서는 대졸집단(24.4)이 취약지역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자녀학년에 있어서는 5-6학년(18.6)이 취약지역을 직업에서는 가사업(16.0)이 교내무단침입을 역할로 인식을 하고 있다.

다섯째, 학교보안관이 학교생활안전에 도움정도는 차이가 있다. 매우도움(50.8), 어느정도도움(26.2), 보통이다(7.5) 순으로 나타났고 여성(38.5)이 남성(12.3)보다 학교보안관이 학교생활안전에 매우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자녀학교유형에서는 국립(31.0)학교 유형이 도움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자녀학년유형에서는 5-6학년(24.6)이 직업에서는 가사업(19.8)매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여섯째, 학교보안관제도의 대한 만족은 차이가 있다. 즉, 학력에 따른 프로그램만족, 능력 만족은 대졸이상 집단에서 높으며, 자녀학년에 따른 프로그램만족, 능력만족, 활동만족, 정책만족은 자녀학년 1-2학년에서 높다. 직업에 따른 프로그램만족은 가사업에서 가장 높다.

2. 제언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학교보안관 제도 정착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지역을 서울의 일부지역으로 제한하였고, 연구대상을 강북지역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이 외의 서울 전역의 초등학교 학부모들에게 적용하고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한계를 지니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학교보안관의 인식, 필요성, 활동인식, 만족도 등의 변수가 전체 학부모들의 만족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 및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보안관 제도 활성화 및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학교보안관에 대한 홍보에 대한 업무가 급선무라 사료된다.

둘째, 학교안전을 위해 전문화된 교육을 통해 학교보안관 제도의 신뢰감 또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김광영, “배움터지킴이 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2] 김경식, 김찬선, 이광렬, “시큐리티 요원의 여가관 분석”, 한국콘텐츠학회지, 제9권, 제1호, pp.27-38, 2009.

[3] 김영한, “학교안전을 위한 국가적 노력과 과제”, 한국청소년정책, 2010.

[4] 김종복, “안전사고 예방교육에 대한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인식 연구”,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제9권, 제3호, pp.41-47, 2007.

[5] 김찬선, “기계경비시스템 이용자의 안전육구청중과 이용만족 및 생활만족의 관계”,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6] 박정희, “365일 온종일 안전학교 만들기”, 교육정책 네트워크 정보센터 교육정책포럼 자료, 2010. 8. 26.

[7] 이명선, “우리학교 정말 안전한가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포럼, 통권 206호, 2010.

[8] 노컷뉴스, “성 범죄자 상당수 초등학교 인근 거주...학부모 '불안'”, 2011년 09월 01일.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articleid=2011090114035163270&newssetid=1331>

[9] 노컷뉴스, “학교 보안관제도 '만족' 그러나 여전히 '불안'”, 2011. 5. 29.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15656>

[10] 서울특별시청 보도자료, 2011. 5. 30.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search_boardId=9171&act=VIEW&boardId=9171

[11] 세계일보, 2011. 5. 29.

<http://www.segye.com/Articles/NEWS/WHOLECOUNTRY/Article.asp?aid=20110529002322&subctg1=01&subctg2=>

[12] mbn 내외 통신, “성범죄자 4명중 3명 초등학교 바로옆 산다”, 2011. 4. 16.
http://www.inbn.co.kr/print_paper.php?number=5103&news_article=news_article

[13] MBN 뉴스 본격 선거전...주말 표심잡기 총력, 2010-05-16.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505626

[14] SBS 뉴스, “서울 초등학교 학부모 90%, 학교보안관 '만족'”, 2011. 5. 29.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921440

저 자 소 개

강 민 완(Min-Wan Kang)

정회원



- 1998년 2월 ~ 현재 : 경기대학교 경호보안학과 교수
- 2009년 1월 ~ 2010년 12월 : 한국경호경비학회 회장 역임
- 2006년 : 제 16회 세계대학생 유도 선수권 대회 사무총장

<관심분야> : 경호안전관리, 경호무도

김 은 정(Eun-Jung Kim)

정회원



- 1999년 2월 : 한국체육대학교 경기지도과(체육학사)
- 2001년 2월 : 용인대학교 일반대학원(체육학석사)
- 2009년 3월 : 경기대학교 경호보안학과(박사과정)

• 2009년 3월 ~ 현재 : 경기대학교 경호보안학과 서울여자대학교, 여주대학 외래교수

<관심분야> : 경호안전관리, 경호무도, 학교안전